7080세대 만남의 장소 '우다방' 외국계 커피 전문점 들어선다

광주충장로우체국 1·2층 리모델링 이달말 개점

광주지역 7080세대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통했던 동구 충장로 2가 충장로우체국 내 일명 '우다방'이 커피전문점으로 거듭난다.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며 시민들에게 애용되다가 한때 폐쇄됐던 공간이 새로운 '우다방'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광주우체국은 12일, 광주충장로우체국 1층 출입구 일부와 창고 공간(158㎡), 2층 회의실(230㎡) 등 공실로 남아있던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입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들어서는 커피전문점은 외국계 업체로, 호남지역에는 처음으로 선을 보이게 된다. 현재 광주충장로우체국은 우편물을 보관하던 창고 건물 등을 커피전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한 채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며 이달 말 개점할 예정이다.

구도심 핵심상권에 위치한 이곳은 지난 80년대 광주우체국으로 운영될 당시 내부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무료로 개방하면서 '우다방'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광주우체국이 동구 대인동 신청사로 이전한 후 광주충장로우체국으로 축소 운영되면서 '추억의 공간 우다방'은 시민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졌다.

지난해 충장로우체국으로부터 '우다방' 공간에 대한 위탁운영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애초 휴게음식업과 의류업으로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할 동구청이 '광주우체국 건물이 1960년대 지어졌고, 해당 지역은 도시미관지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외부 공사를 최소화 해줄 것을 제안했다. 사업자는 이곳이 광주시민에게 사랑받던 장소였다는 점을 감안해 동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업종도 커피전문점으로 최종 결정했다. 위탁운영 기간은 오는 2019년 12월까지다.

지난 1963년 12월 31일 준공된 뒤 구도심 한복판을 지켜온 이 건물은 광주우체사, 광주우체국을 거쳐 현재는 광주충장로우체국으로 활용되고 있다. 광주우체국 건물은 보행자 위주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편물 운반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10년 동구 대인동으로 이전하고 매각 대신 건물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광주우체국 관계자는 "우편물량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 수익 악화로 전국 180여 개 우체국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만남의 장소로 애용되며 광주시민에게 사랑받던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우다방'과 업종이 비슷한 커피전문점을 유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70.59 (-10.24) ▼ 금리 (국고채 3년) 1.90% (-0.01)

▲ 코스닥 628.15 (+8.54) ▼ 환율 (USD) 1126.40원 (-0.10)

소비·투자에 온기… 저성장 저물가 탈출 기대

가계부채 증가·유동성 함정 등 부작용 우려도

한은 금리인하 경기 전망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진 한국경제에 회복의 불씨를 살려줄지 초미의 관심사다.

▲생산·투자·소비·물가 모두 비상 등 속 금리인하=금리 인하 결정은 최근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일제히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내려졌다. 특히, 경제 일각에서 디플레이션 초입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 정부 측도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가 탄력을 받길 기대하는 눈치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통화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고 주문하는 등 정치권의 압박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투자 진작은 구조개혁 병행돼야=금리 인하는 위축된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디플레이션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물론이다. 우선 소비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져 주택가격이 올라 자산효과가 커지면 소비가 진작 될 수 있다. 가계부채 감소 효과가 나타나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에서도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투자 여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 함정 우려=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현재 유동성이 부족해서 소비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니라 소비자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돈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기업 역시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이 우려되는 것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내려 시중금리까지 함께 하락하면 가뜩이나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계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

/연합뉴스

무안공항 이용 해외여행객 광주세관, 휴대품검사 강화

광주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세관에서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현재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 돼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기로 했다. 특히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해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세관은 사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금액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

화이트데이 앞두고 와인·모자 인기

화이트데이(14일)를 이틀 앞둔 12일 광주 지역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와인세트와 모자 등 최신 인기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백화점 설문 결과 여성들은 화이트데이 선물로 향수 이외에 주얼리 세트와 화장품, 가방 등을 꼽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광주상의 회장선출 의원 선거 투표율 98% … 치열한 접전

박흥석-김상열 두후보 세 결집

표 분석 후 추대형식 가능성도

광주상공회의소 제2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100%에 육박했다. 박흥석 현 회장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경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종 회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양측 세력이 결집하면서 의원 선거마저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것이다.

12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제22대 의원 및 특별의원선거'는 회원사 303개사(선거권 2372표)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마감 전까지 59표를 남기고 투표가 끝나 투표율 97.5%를 기록했다.

의원 후보에 등록한 112개사 중 70개사, 특별의원 후보 등록 15개 기관 중 10개 기관을 선출하는 의원 선거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였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특히 계열사와 협력사 등 35개사에 이르는 '우군'을 의원 후보에 등록시킨 호반건설은 광주상의 건물 4층에 캠프를 차리고,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선거를 치렀다.

부회장단의 합의 추대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두 후보는 다른 시각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투표소를 방문했고, 박 회장은 오후에야 현장을 찾았다.

이날 선출된 의원 80명은 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일 각 1표씩 투표권을 행사해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두 후보는 의원 등록 명단이 확정된 뒤 치밀한 표 계산을 통해 유·불리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후보 등록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표 분석을 통해 어느 한 후보가 추대형식으로 다른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남아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기아차, 자동차 드리프트로 청바지 워싱

'K3 로드진' 프로젝트

기아자동차가 자동차를 이용해 청바지 원단을 워싱(색상을 바라게 하는 것)하는 시도에 나섰다.

기아차는 12일 자동차 드리프트로 청바지를 만드는 'K3 로드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 주행로에 가로 40m, 세로 60m의 데님 원단을 깔아 놓고 이 위를 기아차 준중형 세단 K3로 주행하면서 드리프트 등으로 표면에 마찰을 가해 원단을 워싱하는 방식이다. 드리프트는 코너를 주행할 때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끝까지 밟아 뒷바퀴를 옆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운전기술이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이너 강성도 씨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강 씨는 청각장애를 딛고 디자인 명문대학인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졸업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기아차는 3월 한 달 동안 K3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한정판 강성도 디자이너의 데님 클러치 백을 제공하며, 온라인 추첨을 통해 35명에게는 강 디자이너가 제작한 청바지를 증정한다. 온라인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4월5일까지 '디자인드 바이 케이'(Designed by K) 캠페인 웹사이트(kseries.kia.com)에서 응모하면 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아자동차가 자동차 드리프트로 청바지를 워싱하는 색다른 시도를 한다. 작업은 강성도 디자이너가 진행하며 'K3 로드진(Road Jean)'으로 이름지어졌다. 〈기아차 제공〉

트렉스타,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 로체 등정 성공 기원 행사

'코브라시리즈 데이' 개최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Trekstar)가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오는 3월 말 출정하는 히말라야 로체(8516m) 원정 성공을 기원하는 '코브라 시리즈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산악인 김홍빈은 1991년 북미 매킨리(6194m) 등반 중 조난을 당해 동상으로 두 손을 잃는 불운을 겪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95년부터 세계 정상급 봉우리 등정을 도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히말라야 8번째 고봉인 마나슬루(8163m) 등정에 성공, 현재까지 8000m급 고봉 9개의 정상에 올랐다.

트렉스타는 4년 전부터 김홍빈 대장의 활동을 후원하며 도전을 응원해오고 있다. 불굴의 의지로 이번 10번째 정상에 도전하는 김홍빈 대장의 로체 원정에 대한 많은 등산객들의 관심과 독려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10년이 넘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코브라 시리즈 전 품목을 30% 세일하는 '코브라 시리즈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트렉스타 광주호남권 매장에서는 코브라 시리즈의 신제품인 코브라 고어텍스 서라운드 제품 구매 시 '목포→제주 왕복 승선권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코브라 시리즈는 트렉스타가 세계 최초로 스노우보드 신발에 사용되던 보아 시스템 다이얼을 아웃도어 신발 옆 부분에 장착해, 신 끈을 손으로 묶거나 풀지 않고 간편하게 다이얼을 돌려 조이고 풀리게 함으로써 10년이 넘도록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등산화, 트레킹화 라인 제품들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태리 가구
40% OFF ~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3월 19일까지